

# 졌지만 잘 찼다! 연변팀, 중경동량룡에 원정 석패

결과는 0 대 1, 그러나 의지와 투지 빛났다



5월 17일 저녁 7시 30분에 중경시 동량룡체육장에서 진행된 2025 화윤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경동량룡팀(이하 '중경팀')에 0대1로 석패하였다. 비록 졌지만 비교적 잘 치른 경기였다.

이날 중경팀은 골문을 18살 나눈 21번 오재동에게 맡기고 3번 장영개, 2번 왕문현, 4번 싸다우스카스, 24번 류명사로 수비선을 구축했으며 38번 원기룡, 16번 장지웅, 7번 향여망, 8번 리진전, 26번 화효강을 앞뒤 허리에 배치한 뒤 40번 카리레를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형을 들고나왔다. 이는 썸바도르의 전형적인 진공형 전형이다.

연변팀은 21번 구가호에게 골문을 맡기고 14번 리룡, 3번 왕봉, 15번 서계조, 17번 박세호로 수비선을 구축했으며 7번 리세빈, 5번 도밍구스, 33번 호재겸, 20번 김태연을 중원에 배치한 뒤 30번 황진비와 11번 음바를 투톱으로 내세운 4-4-2 진영으로 맞섰다. 이기형 감독이 강팀에 맞대결을 각오한 것이다.

선발 출전 선수 평균년령을 보면 중경팀은 22.4세였고 연변팀은 27.6세

였다.

한편 오후 3시에 진행된 경기에서 2위 룡녕철인팀이 원정에서 정남강련팀에 3대3으로 비기면서 22점으로 잠시 1위에 오른 상황, 중경팀이 연변팀과의 경기에서 빅거나 이기면 다시 1위를 탈환하기에 이번 경기는 수많은 축구팬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중석은 현장을 찾은 1만 3,000여명 당시 축구팬들로 거의 매워졌는데 그 중에는 수십명의 연변축구팬들도 있었다.

중경팀은 경기 시작부터 진영을 밀고 들어오면서 1분도 안되는 사이에 첫번째 헤딩슛을 날렸지만 구가호가 거둬들였다. 이어 가동된 역습에서 연변팀 음바가 공격 과정에 상대 키퍼와 강렬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연변팀은 단순한 방어가 아닌 강한 맞대결로 상대의 금지구역을 파고들며 기회를 노렸고 중경팀도 측면과 중앙 배합으로 연변팀을 밀어붙였다.

경기 20분까지 쌍방은 치열한 공방전으로 밀고 당기기를 하였으나 모두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중경팀의 속도와 측면 공간을 리용한 공격에 맞서 배합과 패스를 리용한 연변팀의 침투가 만나 경기는 매우 정채로웠고 쌍방의 신체 접촉

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슈팅 차수는 7대1로 중경팀이 많이 앞서나갔다.

경기 24분경, 도밍구스가 금지구역 밖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고 본인이 주도하였으나 상대의 수비에 막혔고 다시 올린 크로스는 음바의 헤딩으로 골문 우로 날아올랐다. 연변팀의 몇차례 공격이 상대의 오퍼사이드 전술에 걸렸는데 이는 중경팀 수비선의 일관된 전술이다.

경기 31분경, 중경팀이 금지구역 앞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장지웅이 주도한 공을 구가호가 막아냈다. 35분경, 황진비의 슈팅을 상대 키퍼 오지동이 막아냈다.

41분경, 왕봉의 반칙으로 중경팀이 프리킥 기회를 얻었으나 장지웅이 날린 슛은 골문을 날아넘었다.

3분간의 경기 추가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중경팀에서 파상공세로 연변팀의 문전을 파고들며 혼전을 벌였으나 전반전 경기는 0대0으로 마무리되었다.

후반 들어 두 팀 모두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경팀은 30번 백여도를 올리고 연변팀은 음바 대신 포부스를, 리세빈 대신 허문광을 올렸다. 46분경, 도밍구스가 이번 경기 첫 옐로카

드를 받았다.

52분경, 한차례 반격에서 포부스가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나 상대 문지기와의 일대일 상황에서 고사포를 쏘아 올려 팬들을 실망시켰다.

차레진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상대에게 돌아가는 법. 53분경, 중경팀 장지웅이 금지구역 앞에서 원발 슛으로 연변팀의 골문을 갈랐다. 경기는 한순간 0대1로 기울었고 연변팀이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연변팀은 전반전에 부상을 호소한 박세호를 내리고 천창걸을 올렸다. 중경팀에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으나 연변팀 선수들은 수비 대신 공격으로 맞섰다. 63분경, 황진비의 오른발 슛이 골문 우를 날아넘었다. 전반전에도 오퍼사이드가 많았지만 후반전에도 연변팀 선수들의 오퍼사이드가 빈번했다.

경기는 갈수록 화약냄새가 짙어지며 중원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 71분경, 구가호가 상대의 근거리 슛을 잡아냈다.

73분경, 연변팀은 한광민으로 도밍구스를, 리금우로 김태연을 교체 출전시키며 반전을 노렸다.

절주 빠른 이날 경기에서 연변팀 로장들의 체력 소모가 비교적 컸고 상대 청년들과의 속도전에서 한수 밀렸다. 78분경, 구가호가 다시 한번 위험한 공을 잡아냈다. 82분경, 연변팀은 한차례 프리킥 기회를 얻었으나 상대의 수비에 막혔다. 83분경, 중경팀은 송변과 오영강을 올리고 화효강과 리진전을 내렸다.

88분경에도 구가호가 상대의 슛을 막아냈다. 후반 추가 시간이 5분 주어진 가운데 연변팀은 끝까지 추격을 이어갔지만 패배를 만회하지 못하였다. 연변팀은 비록 패하였지만 경기에서 보여준 완강한 의지와 투지는 유난히 빛났다.

연변팀은 5월 21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중심경기장에서 청도서 해안과 축구협회컵 제3라운드 경기를 치른 후 5월 26일과 6월 1일에 정남강련, 소주동오를 차례로 불러들여 홈경기를 치르게 된다.

/ 김태국 김파 기자

## 경기후

## 왕봉 : 원정서 우리의 공격 보여주는 축구를 했다

5월 17일 저녁 7시 30분에 중경시동량룡체육장에서 진행된 2025 화윤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현시점 리그 최강자인 중경동량룡팀에 아쉽게도 0대1로 패했다.

연변팀은 비록 결과를 내졌지만 과정은 절대 강팀에 밀리지 않으며 원정에서 투지를 발휘했다.

경기를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왕봉이 취재를 받았다.

오늘 팀의 경기력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왕봉은 "원정에서 우리의 공격을 보여주는 축구를 했다. 또한 기회도 많이 창출했으나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다.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돌아가서 잘 총화하겠다."



고 털어놓았다.

중경 원정을 마친 연변팀은 우선 수요일(21일)에 축구협회컵 제3라운드 경기를 준비한 후 26일에는 갑급리그 제10라운드 경기를 펼쳐야 하는 등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 김가혜기자

## 감독초대석

## “약간 운이 나빴던 것 같다”



5월 17일 19시 30분, 중경시동량룡체육장에서 펼쳐진 2025 화윤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중경동량룡팀에 0대1로 석패했다.

경기후 있는 소식공개회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 이기형 감독은 "정말 힘든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우리의 배치대로 경기를 잘 풀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투지를 빛낸 선수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팀도 경기에서 득점 기회가 많았지만 골을 내주었는데 약간 운이 나빴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 김파기자

## 조선족장기 애호가들, 온라인으로 자웅 겨뤘다

한련호 프로급 우승, 김기홍 아마추어급 우승

중국조선족장기련합회와 룡녕성조선족기류(棋類)협회에서 주최하고 단둥시조선족장기협회에서 주관한 제5회 전국 조선족 온라인 장기대회가 5월 17일에 불꽃 튀는 각축전을 펼쳤다.

이번 장기대회는 민족전통문화를 발양하고 조선족장기를 전승, 보호함과 동시에 조선족장기의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조선족장기 애호가들 사이의 교류와 우정을 한층 더 돈독히 하면서 장기 수준을 제고하려는 데 취지를 두었다.

연길, 심양, 대련, 단둥, 안산, 할빈, 청도, 천진, 상해, 목단강, 밀산 등 전국 각지 조선족장기협회 회원들이 연길, 심양, 안산, 대련, 흑룡강, 청도, 한국, 단둥, 천진 등 9개 지역에 마련된 경기구를 통해 이번 온라인 장기대회에 참가하였다. 연변지역의 22명 장기선수는 연길시 신흥가 민태사회구역에 마련된 온라인 경기장에서 이번 경기에 참가하였다.

경기는 길림성소이스툼(永壽) 소프트웨어회사의 온라인 장기게임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프로급에는 40명이 참가하고 아마추어급에는 30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었다.

경기는 중국조선족장기련합회에서 제정한 <장기경기규칙>에 따라 7



제5회 전국 조선족 온라인 장기대회에 참가한 연변지역 장기인들

점 경기 적분 순위제를 실시하였는데 경기 결과 프로급에서는 연길시의 한련호, 광희택, 심창호, 김일 등이 우승부터 4위까지 싸붙이했다. 5위부터 8위까지는 등국룡(심양), 김정수(할빈), 리동철(연길), 김만석(연길)이 차지했다.

아마추어급 우승은 김기홍(청도)이 차지하고 2위부터 8위까지는 김이 차지하고 아마추어급에는 30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었다.

경기는 중국조선족장기련합회에서 제정한 <장기경기규칙>에 따라 7

중국조선족장기련합회 회장 류상룡은 폐막사에서 이번 행사를 협찬한 단둥시조선족장기협회 최상화 회장에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함과 더불어 장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화장단뿐만이 아닌 모든 장기인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 앞으로도 여러 협회들에서 온라인 회원들을 많이 가입시켜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장기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보급에 앞장서줄 것을 부탁했다.

/ 안상근기자, 최승진

## [ 포토 포커스 ]

## “만약에…” 모두가 아쉽다고 했지만



팬들은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고 이기형 감독 또한 “득점 기회가 많았는데… 약간 운이 나빴던 것 같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두가 힘을 거라고 말했던 리그 1위 팀과의 원정경기에서 연변팀은 '강팀에 강한 연변팀'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며 90분 내내 승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골이 들어갔더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완강한 투지를 보여주며 모두를 감동시킨 원정경기, 연변팀은 원정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팬들과 함께 다시 희망의 홈으로 돌아온다.

/ 김가혜기자 / 사진 연변룡정축구구락부